

# 마슬레니차(Масленица)

전통신앙의 봄 축제와 그리스도교의 사육제(謝肉祭) 사이에서

양승조\*

- I. 서론
- II. 마슬레니차의 기원과 그리스도교 수용 이후의 변화
- III. 마슬레니차의 구성과 내용
- IV. 결론

## 〈국문초록〉

러시아에서 늦겨울에 진행되는 축제인 마슬레니차는 슬라브족의 전통적인 봄 축제에서 유래한 것으로, 그리스도교 교회 기념기간인 사순절 직전 한 주간 동안 진행되었다. 마슬레니차 기간에는 블린 먹기, 썰매타기, 대중유락 등과 같은 비종교적인 행사들은 물론이고, 주먹싸움, 성 뺏기 등과 같이 슬라브족이 가지고 있던 전사문화의 잔재들도 주요한 행사로 지켜졌다. 또한 마슬레니차-허수아비 태우기와 같은 슬라브 전통신앙에서 유래한 행사도 축제의 중요한 요소로서 진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슬레니차 축제 내에는 그리스도교적 특징 또한 많이 내포되어 있다. 키예프 루시 시절인 10세기 말에 그리스도교를 수용하면서 성립된 러시아 정교회는 슬라브인들을 그리스도교화 시키는 과정에서 교리에 맞지 않는 전통문화를 말살하거나 그리스도교 문화로 동화시키는 작업을 수행했다. 이 과정에

---

\* 숭실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조교수

서 이교적 행사들로 가득 찬 슬라브족의 전통적인 봄 축제에도 금욕, 용서의 일요일 등과 같은 그리스도교적 행사들이 포함되게 되었다. 이에 더해 유럽화를 추구했던 표트르 1세 시기에는 서유럽의 축제인 사육제에서 행해지는 가장행렬과 같은 행사들이 도입되었다.

그 결과 마슬레니차는 유럽의 사육제와는 다른 기원과 구성을 가지고 있으나, 그리스도교적 행사 또한 내포하고 있는 러시아판 사육제의 모습을 띠게 되었다.

핵심어: 마슬레니차, 사육제, 축제, 러시아 정교회, 슬라브 전통 신앙

## I. 서론

축제는 ‘축일(祝日)과 제일(祭日)’이라는 이 말이 내포하고 있는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본질적으로 종교와 깊은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인간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변의 거대한 힘을 가진 대상들과 현상들을 신적인 존재로 받아들였으며, 이들을 생활 주기와 연계해서 기념했다. 한 예로, 농경문화에 속하는 지역들에서는 대체로 태양과 대지를 주요한 신으로 추존했으며, 삶의 근원인 농업활동과의 연계성 속에서 이들을 기념하고 숭배하는 모임, 즉 축제를 열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축제는 인간이 신(자연)이 베풀어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의 표현이자 이러한 축복이 지속되기를 청하는 기원의 행위이다.<sup>1)</sup> 그리스도교 축제 또한 기본적으로 이러한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리스도교 문화권에 속하는 서양 세계에서는 축제들 중 적지 않은 수가 이 종교의

1) 손상오, 「축제의 현상과 전례적 의미 - 축제의 의미추구와 전례적 적응의 문제 -」, 『현대가톨릭사상』 15권, 1996, 103쪽.

전통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즉, 부활절과 같은 커다란 그리스도교 축제들에서 성 밸런타인의 날(밸런타인데이)과 같이 인간으로서 성자로 추존된 사람들을 기념하는 축일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기념일들과 축제들이 그리스도교 전통과 연계되어 있다.

그런데 그리스도교 축일에는 그리스도교 전통과 관계없는 ‘이교’ 신을 기념하는 축제나 지역 전통이 그리스도교 도입 이후 교회에 의해 그리스도교 축일로 수용된 것들도 있다. 태양신 숭배와 연관된 축일이 예수 탄생일로 수용된 크리스마스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sup>2)</sup> 제정 러시아 시기 전 러시아적 축제들 중 하나였으며, 소련 해체 이후 다시 빠른 속도로 부활하고 있는 ‘마슬레니차(Масленица)’ 역시 그리스도교로 수용된 ‘이교’ 전통이다. 마슬레니차는 사순재(四旬齋, 사순절) 직전 한 주간 동안 진행되는 축제이기에 러시아판 사육제(謝肉祭)라고도 불리는데, 이 행사의 기원에 대한 일반적 설명은 슬라브 전통 축제가 그리스도교 수용 이후 정교회에 의해 그리스도교적 특성을 띠는 축제로 변용되었다는 것이다.<sup>3)</sup>

그런데 소련 해체 이후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D. E. 크라프추노프(Д. Е. Крапчунов)는 마슬레니차가 ‘이교’ 전통에서 유래했다는 설명을 강하게 부정하면서, 이러한 주장은 반종교 정서가 강했던 소련 시기에 활동했던 학자들과 소련 해체 이후에는 “개신교도들”, “신은사주의자들(неохаризматы)”, “신이교주의자들

2) 양도원, 「사육제의 기원과 변천과정 연구 2 - 기독교화 이후의 사육제」,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20권, 2007, 118-119쪽.

3) 예를 들면, 임영상, 「러시아 정교회와 종교축일 - 봄철 축일을 중심으로 -」, 『서양사론』 56호, 1998, 103-111쪽; 남혜현, 「마슬레니차와 홀리 비교 연구 - 축제의 종교적 의미와 사회적 기능을 중심으로 -」, 『비교문화연구』 9권 1호, 2005, 3쪽; 황영삼, 「러시아 축제문화 속에 나타난 러시아인의 특징」, 『슬라브연구』 17권 1호, 2001, 78-79쪽 등.

(неоязычники)”에 속하는 사람들이 러시아 문화의 특징을 이중신앙(Двоеверие)으로 설명하면서 나온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즉, 이들 신이교주의자들은 마슬레니차를 러시아 문화에서 보이는 전통적 ‘이교’ 문화와 새로이 수용된 정교 문화가 혼종하는 것인 이중신앙 문화의 좋은 예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의식 위에서 그는 마슬레니차 시기에 부르는 민요, 마슬레니차 구성 요일의 명칭 등과 같은 마슬레니차를 구성하는 몇몇 요소들을 분석해 보면 이것들이 전적으로 그리스도교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근거 위에서 마슬레니차를 ‘이교’ 전통에서 기원한 축제로 설명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하고 있다.<sup>4)</sup>

마슬레니차의 기원에 대한 이러한 논쟁은 사실 유럽의 다른 지역들에서 찾을 수 있는 비슷한 형태의 축제인 카니발, 즉 사육제의 기원에 대한 논의와 유사하다. 실제로 사육제의 기원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설명이 제시되고 있다. 하나는 사육제가 적적으로 그리스도교 전통이라고 보는 입장으로, 이에 따르면 카니발은 사순재라는 금욕 시기에 접어들기 이전에 고기를 비롯한 음식들을 풍족하게 먹고 마시며 즐기는 시기이다. 이러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carnival’이라는 이 축제의 명칭이 바로 이를 증명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이 용어는 라틴어 ‘carne vale(고기로부터의 작별)’나 ‘carne levare(고기로부터의 해방)’에서 왔다는 것이다.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고대시기에 존재했던 다양한 종족들과 민족들의 전통들에서 찾아볼 수 있는 봄맞이 축제(들)이 그리스도교 교회에 의해 수용된 것이 사육제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지중해

4) Крапчунов Д. Е., “Проблема соотношения христианского и языческого в восприятии русской традиционной культуры на примере масленичной обрядности,” ПРАСНМА. Проблемы визуальной семиотики. № 3(5), 2015, с. 117-127.

제국이었던 로마제국의 영토 내에는 수많은 다양한 종족들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가지고 있던 다양한 전통들이 로마라는 하나의 제국 내에서 상호 영향을 끼치게 되었으며, 나아가 로마제국이 그리스도교 화되면서 교회에 의해 그리스도교 전통으로 수용되었다는 것이다.<sup>5)</sup>

그런데 마슬레니차는 슬라브족과 그들의 거주지라는 이 축제가 행해진 인적이고 공간적인 조건으로 인해 유럽의 로마가톨릭 지역에서 나타나는 사육제와는 다른 특징들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마슬레니차 기간에 벌어지는 행사들 중에는 그리스도교와는 전혀 관련 없는 것들이 존재하며, 또한 러시아 정교회에서는 마슬레니차를 교회의 공식 절기로 수용하지도 않았다. 또한 이러한 차이들로 인해 유럽화를 표방했던 표트르 1세는 슬라브적 특징이 강하게 드러나던 마슬레니차 행사에 가장행렬을 비롯한 유럽의 사육제에서 진행되는 행사들을 인위적으로 도입했던 것이다. 게다가, D. E. 크라프추노프의 주장과는 달리, 마슬레니차가 슬라브족의 전통 축제에서 유래했다는 설명은 소련 시기 이전인 제정 러시아 시기의 저술들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sup>6)</sup> 이러한 이유 때문에 러시아 정교회의 시각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현대의 필자들조차도 마슬레니차의 기원을 슬라브 전래의 ‘이교’ 전통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sup>7)</sup>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마슬레니차를 전적으로 그리스도교적 축제로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이에 본 글에서는 슬라브 전통에서 시작해서 그리스도교적 특성

5) 양도원, 「사육제의 기원과 변천과정 연구 1 - 어원과 고대사회의 축제를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18권, 2006, 166-167쪽.

6) 예를 들면, Дубровский Н.(сост.), *Масляница*. М.: Типография С. Селиванова, 1870, с. 3-12.

7) Моисеенков Александр, “Масленица: смысл, история и традиции”, *Фома* (<https://foma.ru/maslenicza-smysl-i-istoriya-tradiczii-i-obryadyi.html#mysl>. 검색일: 2018년 10월 26일).

이 가미된 축제라는 전제 위에서 마슬레니차의 기원과 변천, 그리고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 II. 마슬레니차의 기원과 그리스도교 수용 이후의 변화

그리스도교 수용 이전에 러시아인은 자연현상을 신격화한 다신교를 가지고 있었다. 이들이 숭배하던 신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공(公, Князь)과 드루쥐나(Дружина)<sup>8)</sup>가 숭배하던 페룬(Перун)과 일반 대중이 믿던 벨레스(Велес)였다. 페룬은 ‘천둥의 신’으로 원래는 바라크족(Варяги)<sup>9)</sup>의 숭배대상이나, 이들 노르만의 일족이 지배세력으로 서 동슬라브 지역으로 이동해 왔을 때 함께 들어와 슬라브족의 신이 되었고, 벨레스는 ‘축신(畜神, скотий бог)’으로 전통적인 슬라브족의 신<sup>10)</sup>이었다. 마슬레니차는 이 중에서 슬라브족의 신인 벨레스를 기념해서 벌이는 축제로, 계절이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는 시기에 열렸었다. 벨레스는 가축의 신이자 농업의 수호신이었으며, 이에 슬라브족은 농사가 가능해지고 산물이 풍성해지기 시작하는 봄에 그를 기념하는 축

8) 드루쥐나(Дружина)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초기국가 시기에 통치자인 공(公, Князь)을 보좌하고 그에게 조력하던 전사이다.

9) 러시아 최고의 역사서인 ‘원초연대기(Повесть временных лет)’에 따르면,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의 시원이 되는 최초 국가는 슬라브인들이 스칸디나비아 반도 동부 연안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노르만의 일족을 통치자로 받아들이면서 수립되었다. 이때 들어온 노르만인들을 바라크족(Варяги) 또는 루시(Русь)라고 부른다 (Повесть временных лет, Moscow: Augusburg: Im Werden Verlag, 2003, c. 7).

10) 벨레스(Велес)는 볼로스(Волос)라고도 불리며, 페룬과 경쟁하는 신이다. 남혜현에 따르면, 볼로스 숭배는 가축 수호뿐만 아니라 곰 숭배와도 연관된 현상이다 (남혜현, 「마슬레니차와 홀리 비교 연구 - 축제의 종교적 의미와 사회적 기능에 중심으로 -」, 『비교문화연구』 9권 1호, 2005, 3쪽).

제를 벌였다. 이 축제 기간에 사람들은 잔치를 베풀고, 치즈, 버터, 고기 등과 같이 가축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식품들과 여러 가지 곡물들 및 그 가루를 사용해서 만든 다양한 음식들을 먹었다. 또한 주먹싸움을 비롯한 많은 놀이들을 즐겼으며, 조상의 무덤을 찾아 인사하고 음식을 바치는 시간도 가졌다.<sup>11)</sup>

그런데 이러한 다신교 신앙은 키예프 루시(Киевская Русь)<sup>12)</sup>가 블라디미르(Владимир) 대공 시기에 그리스도교 일파인 정교를 수용하면서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루시의 세례(Крещение Руси)’, 즉 키예프 루시의 그리스도교 수용을 주도했던 블라디미르 대공도 개종 이전에는 키예프 공국의 전통적인 다신교 신앙과 그 숭배대상인 신들을 열성적으로 믿어서, 금으로 된 귀를 가진 은제 페룬 두상을 만들어 바치기도 했다.<sup>13)</sup> 이때 키예프 루시 주변에서는 이슬람교(불가 불가르), 유대교(하자르), 로마 가톨릭교(서유럽), 그리스 정교(비잔티움 제국)를 신봉하는 다양한 세력들이 슬라브족을 자신들이 믿는 신앙으로 개종시키려는 활동을 벌이고 있었는데, 블라디미르는 이 중에서 정교에 보다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키예프 루시와 비잔티움 제국 사이의 관계가 보다 긴밀해지는 사건이 발생한다. 비잔티움 제국의 바실리오스 2세(Basil II)는 제위에 오른 후 반대 세력들의 도전으로 인해 정치적·군사적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비잔티움 황제는 이러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키예프 공국을 비롯한 주변 세력들에게 군사적 지

11) Дубровский Н.(сост.), *Масляница*. М.: Типография С. Селиванова, 1870, с. 4-5, 8, 11; Александр Моисеенков, “Масленица: смысл, история и традиции”, *Фома* (<https://foma.ru/maslenicza-smysl-i-istoriya-tradiczii-i-obryadyi.html>) #smysl. 검색일: 2018년 10월 26일).

12) 노르만 인을 통치자로 ‘초청’해서 수립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최초의 국가이다.

13) Дубровский Н.(сост.), *Масляница*. М.: Типография С. Селиванова, 1870, с. 5.

원을 요청했는데, 이때 블라디미르 대공만이 이에 호응해서 수천 명으로 구성된 부대를 파견해 주었다. 이때 블라디미르는 바실리오스 2세가 반란을 진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가로 비잔티움 제국 황녀와의 결혼을 요구했다. 그런데 국내 문제를 해결하게 되자 바실리오스 2세는 블라디미르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다. 이에 블라디미르는 크림반도 남서쪽에 위치해 있던 비잔티움 제국의 도시 케르소네소스(Chersonesus)<sup>14)</sup>를 점령하면서, 자신의 요구가 충족되지 않을 시에는 콘스탄티노플도 공격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에 비잔티움 황제는 정교 수용을 조건으로 블라디미르 대공과 자신의 여동생 안나 포르피로게니타(Anna Porphyrogenita)의 결혼을 허용하게 되었다. 그리고 블라디미르가 988년에 비잔티움 황녀와 결혼하는 과정에서 세례를 받고 그리스 정교로 개종함으로써 키예프 루시는 그리스도교 국가로 바뀌게 되었다.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후 블라디미르는 슬라브족의 전통 신앙과 연관된 것들, 즉 슬라브족의 전통적인 다신교와 연관된 신상과 사당을 부수고, 그 자리에 정교 교회와 수도원을 건설했다. 또한 각지에 정교 선교사를 파견하여 신민에게 강제로 세례를 집행하도록 하는 등 키예프 루시가 실질적으로 그리스도교 국가로 바뀔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했다.<sup>15)</sup>

키예프 공국이 정교 국가로 바뀌게 되면서 슬라브인들 내에서 벨레스에 대한 신앙은 소멸되어 갔다. 그리고 그의 자리는 그리스도교 내에

14) 케르소네소스(Chersonesus)는 크림 반도 남서부에 있던 고대 그리스 식민도시로, 킵차크 칸국에 의해 파괴되는 13세기 말까지 존속했다. 키예프 루시 시기에 작성된 연대기에는 ‘코스순(Корсунь)’이라고 표기되었던 이 도시는 블라디미르 대공 시절에는 비잔티움 제국의 흑해 거점지였다.

15) 러시아 정교회는 블라디미르의 이러한 공로, 즉 키예프 공국에 그리스도교를 도입하고, 국가 내에서 정교가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 공로를 인정하여 후에 그를 성인으로 시성했다. 그 결과 블라디미르는 블라디미르 스바토슬라비치(Владимир Святославич), 즉 ‘성자 블라디미르’라고 불리게 되었다.



서 벨레스와 비슷한 특성을 가진 인물인 성 블라시오(Saint Blaise)가 차지하게 되었다. 성 블라시오는 몇 가지 점에서 벨레스가 가지고 있는 상징을 대신할 수 있는 그리스도교 인물이었다. 먼저, 성 블라시오의 러시아어 명칭은 블라시(Власий Севастийский)로 벨레스(또는 볼로스)와 그 발음이 비슷하다. 또한 그는 그리스도교 내에서 가축의 수호 성인으로서 가축의 신인 벨레스와 담당하는 역할도 동일하다. 게다가 성 블라시오의 축일은 봄이 다가오는 2월 24일<sup>16)</sup>인데, 그리스도교 수용 이전에 벨레스를 기념하는 슬라브족의 봄 축제는 초봄에 열렸었다.<sup>17)</sup>

이렇듯 키예프 루시가 정교로 개종하고 그리스도교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되면서 축신 벨레스를 찬양하는 슬라브족의 봄 축제 또한 그리스도교 명절로 변화되어 갔다. 정교에서는 사순재 직전 일주일을 최후의 심판을 상기하는 기간으로 지켰는데, 러시아 정교회에서는 이를 ‘식르나야 세드미차(Сырная седмица, 치즈 주간)’라고 부른다. 이것은 초기 그리스도교시기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수도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사순재를 준비하던 전통, 즉 수도자들이 40일간의 금욕 생활에 들어가기 직전 일주일간 유제품과 (금욕적 식단으로 구성된) 음식을 섭취하며 고행을 준비한 것에서 유래한 것이다. 러시아 정교회에서는 이 주간을 사순재를 준비하는 기간으로 경건하게 지켜서, 예를 들면, 토요일에는 먼저 죽은 그리스도교도들을 기리며 육식을 끊는 소재(小齋)<sup>18)</sup>로 지켰고, 일요일에는 아담의 타락을 상기하며 경건하게 하루를

16) 성 블라시오의 축일은, 정교회에서는 2월 24일(구력으로는 11일),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2월 3일이다.

17) Дубровский Н.(сост.), *Масляница*. М.: Типография С. Селиванова, 1870, с. 9-12.

18) 그리스도교에서 특별한 날에 음식 섭취를 조절하는 것은 크게 대재(大齋)와 소재(小齋)로 나뉘는데, 대재는 모든 음식을 먹지 않는 단식재(斷食齋)이고, 소재는 고기 취식만을 끊는 금육재(禁肉齋)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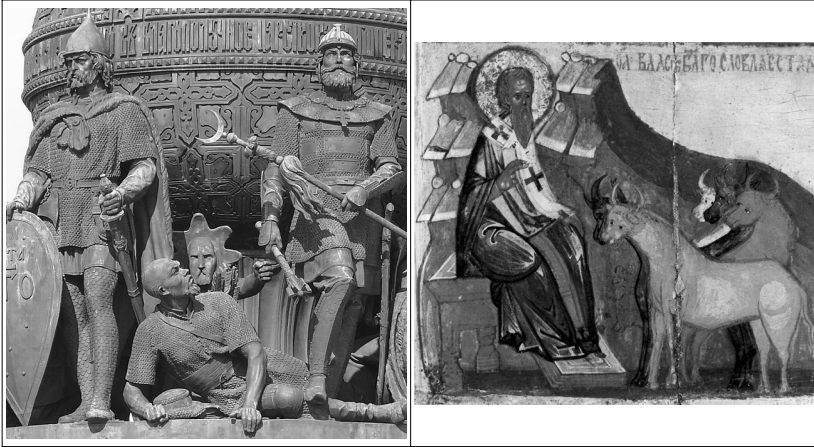
보냈다.<sup>19)</sup> 그런데 러시아 정교회는 슬라브족이 가지고 있던 이교적 습속들을 배제하거나 그리스도교화 하는 과정에서 벨레스를 기념하는 슬라브족의 전통적인 봄 축제를 정교회의 ‘식르나야 세드미차’와 같은 늦겨울에서 초봄 사이에 지키는 교회 절기와 연결시키게 되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 봄 축제가 열리는 시기는 그리스도교 달력에 맞춰졌다. 벨레스 축제로서의 봄 축제는 낮과 밤의 길이가 동일한 춘분에 열렸으나, 교회의 개입으로 이 기간은 사순재 직전의 ‘식르나야 세드미차’와 동일한 기간으로 조정되었다. 춘분이 양력으로 대개 3월 21일이나 22일경이고 사순재 직전 한 주간이 대개 2월 초순에서 중순이라는 점<sup>20)</sup>을 감안할 때, 그리스도교 수용 이후 마슬레니차를 여는 시기는 한 달 이상 앞당겨진 것이다.<sup>21)</sup> 그 결과 이 축제는 늦겨울에서 초봄 사이에 열리는 (겨울보내기를 겸한) 봄맞이 축제의 성격에서 늦겨울에 열리는 겨울보내기 축제의 성격을 강하게 띠게 되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축제 기간도 축소되어서 최대 일주일로 제한되었다. 이렇듯 교회의 끊임 없는 그리스도교화 노력의 결과 ‘이교신’인 벨레스를 기념하는 슬라브족의 전통적인 봄 축제는 그리스도교 사순재를 준비하는 일종의 러시아관 사육제(謝肉祭)로 변용되었던 것이다.

19) Дубровский Н.(сост.), *Масляница*. М.: Типография С. Селиванова, 1870, с. 13; Александр Моисеенков, “Масленица: смысл, история и традиции”, *Фома* (<https://foma.ru/maslenicza-smysl-i-istoriya-tradiczii-i-obryadyi.html#smysl>). 검색일: 2018년 10월 26일).

20) 음력으로 표시되는 춘분은 물론이고, 사순재 또한 음력으로 계산되었던 부활절을 기준으로 그 이전 40일을 가리키는 것이기에, 이 두 절기의 양력 날짜는 매년 바뀐다.

21) Александр Моисеенков, “Масленица: смысл, история и традиции”, *Фома* (<https://foma.ru/maslenicza-smysl-i-istoriya-tradiczii-i-obryadyi.html#smysl>). 검색일: 2018년 10월 26일).

〈그림 1〉 벨레스(좌)와 성 블라시오(우)



\* 출처: <http://monpartya-mos.ru/monument-ty-syacheletie-rossii-isterika-bol-shevikov-i-pamyatnik-ty-syacheletiyu-samoderzhavnogo-gneta/>(검색일: 2018년 10월 30일).

\*\* 1862년에 국가 정초 천년을 기념해서 벨리키 노브고르드(Великий Новгород)에 세워진 조각상 <러시아 천년(Тысячелетие России)>에 새겨진 벨레스: 류리크(Рюрик, 왼쪽 기립), 벨레스(가운데 뒤쪽), 타타르(가운데 앞쪽), 드미트리 돈스코이(Дмитрий Донской, 오른쪽 기립).

\* 출처: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4/47/Saint\\_Blaise\\_and\\_animals\\_2.jpg](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4/47/Saint_Blaise_and_animals_2.jpg)(검색일: 2018년 10월 30일).

\*\* 15세기 이콘화에 나오는 가축과 함께 있는 성 블라시오.

그런데 이러한 교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봄 축제는 유럽의 사육제와는 달리 과거 슬라브족의 전통적 봄 축제의 특징을 적지 않게 유지했으며, 이러한 이유로 ‘카니발’이 아니라 ‘마슬레니차’라는 러시아만의 독특한 명칭을 가지게 되었다. 정교수용 이후 그리스도교적 절기로 변용된 마슬레니차는 슬라브족의 전통적인 봄 축제는 물론이고 서유럽의 사육제(謝肉祭)와도 다르게 축제 기간 동안 육식을 금지했다. 카니발

(Carnival)은 ‘고기를 멀리한다’는 어원과 달리 사육제 기간에 육식을 금한다는 말이 아니다. 사순제는 예수가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을 기념하는 기간이기에, 그리스도교 절기를 지키는 것이 전 사회적 행사였던 시기에 유럽에서는 정결한 마음을 유지하면서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환으로 이 기간을 육식이 금지되는 금육제(禁肉齋)로 지켰다.<sup>22)</sup> 이렇듯 사순제 기간에 육식이 금지되었기에 서유럽에서는 그 직전에 진행되는 사육제 기간에는 오히려 육식을 비롯한 다양한 음식을 먹으며 유희를 즐기는 축제를 벌였다. 그런데 러시아 정교회에서는 사순제 기간은 물론이고 마슬레니차 기간에도 고기 취식을 금지했으며, 대신에 우유, 치즈, 버터 등과 같은 유제품류를 대용물로 섭취할 것을 권장했다. 이러한 이유로 러시아가 그리스도교를 수용한 초기에 교회는 이 기간을 ‘마소푸스트(Мясопуст)’ 또는 ‘식르냐야 세드미차’라고 불렀는데, 이 말은 ‘금육제(禁肉齋)’와 ‘치즈 주간’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러시아 대중은 ‘마소푸스트’와 같은 종교적 느낌이 강한 용어 대신에, 이 기간에 우유, 치즈와 같은 유제품이나 블린과 같은 버터를 사용해서 만든 음식을 먹는다는 것에서 착안해서 이 축제에 ‘시르(сыр, 치즈)’나 ‘마슬로(масло, 기름)’<sup>23)</sup>가 들어가는 다른 다양한 명칭들을 붙였다. 그리고 16세기에 접어들면서 이러한 용어들 중에서 ‘마슬레니차(Масленица, 기름(버터) 주간)’가 가장 대중적인 명칭으로 자리 잡게 되었던 것이다.<sup>24)</sup>

22) 이것은 그리스도교 종파 중 하나인 정교를 신봉하는 러시아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현상이어서, 이곳에서는 사순제를 대금육제(大禁肉齋, Великий пост)라고 부른다.

23) ‘마슬로(масло)’는 보통 식물이나 동물에서 추출한 식용기름을 의미하나, ‘마슬레니차’와 연관해서 사용하는 의미에서는 이러한 협의의 의미라기보다는, 이에 더해 ‘가축의 젖’과 이를 사용해서 생산한 ‘유제품’ 등을 포함하는 ‘유지류(油脂類)’ 전체를 가리키는 광의의 개념이다.

마슬레니차를 상징하는 음식인 블린(блин) 또한 슬라브족의 음식이다. 블린의 러시아어 어원은 ‘믈린(мли́н)’인데, 이것은 ‘밀가루의’라는 의미를 가진 ‘무츠노이(мучной)’에서 나왔다. 이에서 알 수 있듯이 블린은 곡물가루를 물에 개어 얇게 부친 러시아식 팬케이크이다. 블린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곡물은 보통 밀가루이나, 과거에는 다른 곡물가루를 사용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루시 시기에는 메밀가루를 사용한 블린도 있었기에, 메밀가루로 만든 것은 ‘붉은 블린(красный блин)’, 밀가루로 만든 것은 ‘우유(색) 블린(молочный блин)’이라고 불렸다. 그런데 이 블린이 어디에서 기원했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서 논의가 분분하다. 이 논쟁은 러시아 국가 기원에 대한 논쟁, 즉 노르만족인 바랴크가 키예프 루시를 건설했다는 ‘노르만설’과 슬라브족은 노르만 도래 이전부터 독자적인 국가체제와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는 ‘반노르만설’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고 있다. 즉, 블린 또한 바랴크가 도래할 때 이들과 함께 들어왔다는 설명과 슬라브족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음식문화였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우리의 논의와 관련해서 지적할 필요가 있는 것은, 어느 주장이든 블린은 슬라브인들이 그리스도교를 수용하기 훨씬 전부터 이미 먹고 있던 음식이었다는 점이다. 그런데 블린이 처음부터 슬라브족의 봄 축제를 대표하는 음식은 아니었다. 원래 슬라브인들은 봄 축제 기간에 치즈파이(пирог с сыром), 호보로스트(хворост),<sup>25)</sup> 페레페치(перепечи)<sup>26)</sup> 등을 더 즐

24) Дубровский Н. (сост.), *Масляница*. М.: Типография С. Селиванова, 1870, с. 14-15; Александр Моисеенков, “Масленица: смысл, история и традиции”, *Фома* (<https://foma.ru/maslenicza-smysl-i-istoriya-tradiczii-i-obryadyi.html#smysl>). 검색일: 2018년 10월 26일).

25) 호보로스트(хворост)는 밀가루 반죽을 기름에 튀겨 만드는 러시아식 튀긴 과자이다.

26) 페레페치(перепечи)는 종지모양으로 만든 밀가루 반죽 안에 다양한 견과류를 넣

겨 먹었다. 그러다 14세기에 와서 블린이 마슬레니차를 대표하는 음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던 것이다.<sup>27)</sup>

### Ⅲ. 마슬레니차의 구성과 내용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마슬레니차는 슬라브 전통 봄 축제가 정교회에 의해 순화되고 변용된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축제 기간도 늦겨울에서 춘분에 이르는 긴 시간에서 사순재 직전 한 주간으로 축소되었다. 러시아 대중은 이 한주간의 마슬레니차 기간을 ‘소 마슬레니차(Узкая Масленица)’와 ‘대 마슬레니차(Широкая Масленица)’로 나누는데, ‘소 마슬레니차’는 앞의 삼일인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이고, ‘대 마슬레니차’는 뒤의 사일인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이다. 이들 마슬레니차를 구성하는 날들은 각각 고유한 명칭을 가지고 있어서, 마슬레니차 주간이 시작되는 월요일은 ‘영접의 날(встреча)’, 화요일은 ‘유희의 날(заигрыши)’, 수요일은 ‘미식가의 날(лакомка)’, 목요일은 ‘환오(歡娛)의 날(разгул)’, ‘전환의 날(перелом)’, 금요일은 ‘장모맞이(연회)의 날(тёщины вечёрки)’, 토요일은 ‘시누이내방의 날(золовкины посиделки)’, 그리고 마지막 날인 일요일은 ‘송별의 날(проводы)’, ‘용서의 날(Прощеный день)’ 등으로 불린다.<sup>28)</sup>

어 구운 러시아 음식이다.

27) Матюхина Ю. А., Алебастрова А. А., Сорокина О. И., Далланова Л. Ж., Малахова Е. Е., *Масленица, Великий пост, Пасха: История, традиции, постный и праздничный стол*. М.: Ниола-Пресс, 2010, с. 8, 10, 13.

28) “Масляница”, *Энциклопедический словарь Т. XVIII<sup>1</sup> Малолетство - Мейшагола* / Издатели: Ф. А. Брокгауз, И. А. Еврон. СПб., 1896, с. 755; “Масленица: обряды на каждый день”, *Uralweb.ru* (<https://www.uralweb.ru/pages/other/3013.html>).

마슬레니차가 시작되기 직전 토요일에 러시아인들은 부모와 조상의 묘를 찾아가 성묘했다. 러시아 정교 전통에는 1년 중에 부모와 조상의 묘를 찾아가는 토요일이 7차례 있는데, 이를 ‘아버이 날(Родительский день)’ 또는 ‘아버이 토요일(Родительская суббота)’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아버이 토요일’들 중에서 2차례는 지금까지 사망한 모든 세례 받은 그리스도교도를 위해 기도하는 ‘대 아버이 토요일(Вселенская родительская суббота)’인데, 이 중 하나가 마슬레니차 주간 직전 토요일이다. 사실 이날은 ‘이교’ 전통으로서의 마슬레니차보다는 러시아 정교 축일로서 ‘마소푸스트(Мясопуст)’와 연결되는 것이기에, ‘금육의 아버이 토요일(Мясопустная родительская суббота)’이라고도 불린다.<sup>29)</sup>

마슬레니차 주간의 첫째 날인 월요일은 ‘영점의 날’로 마슬레니차 주간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고 준비하는 날이다. 이날에 사람들은 짙과 낡은 옷가지를 사용해서 커다란 허수아비를 만들어 마을이나 도시의 중심에 세워놓았는데, 이것은 여성의 모양을 하고 있으며 명칭은 축제 명칭과 동일하게 ‘마슬레니차(마슬레니차-허수아비)’<sup>30)</sup>라고 불린다. 또한 이날에는 죽은 가족친지를 생각하며 블린을 만들어 가난한 사람들을 대접했다. 또한 야르마르카(ярмарка, 정기시장)가 열려서 먹거리

---

검색일: 2018년 10월 26일).

29) Киктенко Елизавета, “Родительские субботы”, *Фома* (<https://foma.ru/roditelskie-subbotyi.html>). 검색일: 2018년 10월 26일); Дубровский Н.(сост.), *Масленица*. М.: Типография С. Селиванова, 1870, с. 14.

30) 러시아에서 ‘마슬레니차-허수아비’는 보통 ‘마슬레니차’ 축제와 동일하게 ‘마슬레니차’라고 불리나, 이 외에도 고티야-마슬레니차(Гостья-Масленица), 가라니카(Гаранька), 폴류슈카(Полошка), 바바(Баба) 등등 지역에 따라 다양한 명칭이 붙여져 있다(Агапкина Т. А., *Мифопоэтические основы славянского народного календаря. Весенне-летний цикл*. М.: Индрик, 2002, с. 583). 이 글에서는 축제로서의 ‘마슬레니차’와 구분하기 위해 허수아비로서의 마슬레니차는 ‘마슬레니차-허수아비’라고 표기할 것이다.

를 비롯한 다양한 물건들이 거래되었다.<sup>31)</sup>

둘째 날인 화요일부터는 사람들 사이에서 교류가 활발해지기 시작한다. 이날에는 젊은 남녀가 서로를 초대해서 음식을 나누며 같이 놀이를 즐겼는데, 이러한 이유로 이날을 ‘유희의 날’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놀이들 중 하나가 썰매타기이다. 농촌에서 처녀총각들은 블린을 먹은 후 말 한 마리나 세 마리가 끄는 썰매를 타고 마을 마을을 돌아다녔다. 축제 의상을 차려 입은 이들 젊은이들은 때때로 음악을 연주하며 돌아다녔다. 또한 사람들은 높은 등성이나 (도시의 경우에는) 임시로 만든 가파른 썰매장에서 손 썰매를 탔다.<sup>32)</sup>

마슬레니차 시기에 하는 또 다른 놀이로는 주먹싸움(Кулачный бой)이 있다. 주먹싸움은 슬라브족의 전통적인 전투 방식에서 기원한 격투 놀이로, 마슬레니차가 난잡하고 난폭한 행사로 인식되는데 일조했다. 그 극단적인 경우는 툴라주(Тульская губерния)에서 벌어진 주먹싸움이다. 툴라주에서는 마슬레니차 전 기간에 주먹싸움을 벌였는데, 놀이가 매우 격렬하게 진행되어서 이가 부러지고, 코가 깨지고, 눈을 다치고,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심하게 부상을 당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으며, 심할 때에는 사망 사고가 나기도 했다. 이러한 사고에도 불구하고 이 지방에서는 노소에 상관없이 남자들 사이에서 주먹싸움에 대한 열정이 남달리 커서, 아침 일찍부터 운동을 하며 준비할 정도였다.<sup>33)</sup>

‘미식가의 날’인 수요일에 사람들은 친지와 친구 등 자신이 좋아하는

31) “Масленица: обряды на каждый день”, *Uralweb.ru* (<https://www.uralweb.ru/pages/other/3013.html>). 검색일: 2018년 10월 26일).

32) Дубровский Н.(сост.), *Масляница*. М.: Типография С. Селиванова, 1870, с. 18-19.

33) Дубровский Н.(сост.), *Масляница*. М.: Типография С. Селиванова, 1870, с. 21-23.



〈그림 2〉 마슬레니차에 말이 끄는 썰매를 타는 사람들



\* P. N. 그루진스키(П. Н. Грузинский), “마슬레니차”,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a/ad/Pyotr\\_Nikolayevich\\_Gruzinsky\\_-\\_Maslenitsa.jpg](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a/ad/Pyotr_Nikolayevich_Gruzinsky_-_Maslenitsa.jpg), 검색일: 2018년 10월 26일).

사람들을 초대해서 블린을 비롯한 음식을 대접했다. 특히 이날에는 장모가 사위를 초대해서 자신만의 조리법으로 만든 블린을 대접했는데, 이것은 장모와 사위가 서로를 좀 더 잘 이해하기위한 행사로 인식되었다.<sup>34)</sup>

목요일은 ‘대 마슬레니차’가 시작되는 날(‘전환의 날’)이다. 이날부터 사람들은 본격적으로 마슬레니차를 즐기기 시작한다. 사람들은 거리와 거리, 마을과 마을을 돌아다니며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놀이를 하는 대중유락(大衆遊樂, Народные гулянья)을 즐겼다. 예를 들어, 야로슬라블(Ярославль)에서는 이날에 전통 민중 악기를 타는 연주가 무리가

34) “Масленица: обряды на каждый день”, *Uralweb.ru* (<https://www.uralweb.ru/pages/other/3013.html>, 검색일: 2018년 10월 26일).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집주인과 함께 콜라다(коляда)<sup>35)</sup>를 불렀다. 노래가 끝나면 집주인은 몰려온 무리에게 돈을 주고 술을 대접했다.<sup>36)</sup> 도시에서는 보다 다양한 불거리와 즐길 거리들이 대중에게 제공되어서, 마슬레니차 기간에 페트루슈카(Петрушка)<sup>37)</sup>, 광대극, 회전목마, 손풍금 등과 같은 외국에서 들어온 놀이도 즐겼다. 광대극은 차르 알렉세이 시기에 처음으로 들어왔는데 그는 이 극을 상연하는 극장을 마련했다. 그리고 이미 이 시기부터 무대 공연을 위해 농노들에게 악기와 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sup>38)</sup> 모스크바에서는 마슬레니차 기간에 대중 유락의 일환으로 말타기 시합, 주먹싸움 등과 같은 행사들을 모스크바강 주변 여러 곳에서 열었는데, 특히 노빈스키산책로(Новинское гуляние)<sup>39)</sup>가 마슬레니차 시기에 대중유락이 진행된 대표적인 장소였다. 19세기 말에 노빈스키 산책로에서 벌어진 대중유락은 이 도로의 북쪽 끝인 쿠드리노광장(Кудринская площадь)에서 남쪽 끝인 스몰렌스크시장(Смоленский рынок)에 이르는 지역 곳곳에 조성된 다양한 즐길 거리들과 함께 진행되었다. 이곳에는 카페와 공연장이 설치되어서 사람들이 음식과 술을 먹고 희극이나 페트루슈카(Петрушка) 인형극을 관람했으며, 거리 주변에 조성된 썰매장, 스케이트장에서 썰매와 스케이트를 즐겼다. 대중유락은 종소리와 함께 종료되었으며, 이후 사람들은 마

35) ‘콜라다(коляда)’는 새해 전날이나 크리스마스 전날에 집집을 돌아다니는 풍습이다. 이때 사람들은 노래를 불렀는데, 이 음악도 역시 ‘콜라다’라고 부른다.

36) Дубровский Н.(сост.), *Масляница*. М.: Типография С. Селиванова, 1870, с. 17.

37) 페트루슈카(Петрушка)는 러시아 대중 인형극의 일종으로, 손인형극이다.

38) Дубровский Н.(сост.), *Масляница*. М.: Типография С. Селиванова, 1870, с. 25-26.

39) 노빈스키 산책로(Новинское гуляние)는 모스크바시 중심가에 위치한 사도보예 환상도로(環狀道路)(Садовое кольцо)의 일부인 현 노빈스키 가로수길(Новинский бульвар)이다.

차를 타고 술을 마시러 갔다.<sup>40)</sup>

〈그림 3〉 집집을 돌아다니는 합창대와 윤무



\* K. A. 트루토프스키(К. А. Трутовский), “쿠르스크주(州)의 윤무(輪舞)(хоровод в Курской губернии)”,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2/2d/Trutovsky\\_001.jpg](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2/2d/Trutovsky_001.jpg), 검색일: 2018년 10월 26일)

표트르 1세 시기에는 마슬레니차 행사에 서유럽의 사육제에서 보이는 행사들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표트르 1세는 수도를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옮기기 이전부터 마슬레니차 시기에 유럽에서 들어온 행사들인 희극공연, 회전목마타기, 가면을 쓰고 거리들 돌아다니는 가장행렬 등을 모스크바에서 진행했다. 페테르부르크가 수도가 된 후에는 이곳에서 열리는 가장행렬이 가장 화려하게 치러졌는데, 여기에는 차르도 직접 참여

40) Дубровский Н.(сост.), *Масленица*. М.: Типография С. Селиванова, 1870, с. 23–24, 39–40.

했다. 특히, 1721년에 스웨덴과 뉘스타드 강화조약(Ништадтский мир)을 체결함으로써 대북방전쟁의 최종 승자가 되자, 표트르 1세는 이를 기념해서 1722년에 모스크바에서 마슬레니차 행사를 성대하게 거행했다. 이때 진행된 마슬레니차 가장행렬에서는 썰매에 실린 러시아 함대의 배들이 모스크바의 거리들을 행진하며 지나가는 장관이 연출되었다. 그러나 마슬레니차 시기에 진행되던 유럽식 행사인 가장행렬은 표트르 1세가 사망한 후 중단되었으며, 엘리자베타 황제시기에 와서야 다시 부활되었다.<sup>41)</sup>

다섯 번째 날인 금요일은 ‘장모맞이(연회)의 날’이다. 앞서 수요일에 장모가 사위를 초대하여 대접한 것에 대한 인사로 금요일에는 사위가 장모를 초대한다. 그러면 장모는 여러 친척들과 함께 사위집을 방문했다. 그러면 사위는 장모와 여러 손님들에게 사위집의 블린, 즉 사위의 아내이자 독립해서 한 가정을 꾸리게 된 장모의 딸이 요리한 음식을 대접했다.<sup>42)</sup>

토요일은 ‘시누이내방의 날’이라고 불리는데, 이것은 한 집안의 새로운 구성원이 된 며느리가 시누이를 초대해서 선물을 주며 친교를 나누는 날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날에는 설성(雪城)을 놓고 다투는 성뿔기 놀이를 즐겼다. 심비르스크주, 펜자주, 예니세이스크주(Енисейская губерния)에서는 몇 개의 탑과 두 개의 문을 갖춘 설성을 강가에 만들었다. 이때 사람들은 눈으로 성을 지으면서 동시에 성 주변 강가에 얼음구멍을 뚫어 놓았다. 그리고 마슬레니차 주간의 금요일이 되면 이 성

41) Дубровский Н. (сост.), *Масляница*. М.: Типография С. Селиванова, 1870, с. 26-31, 35-37. 1722년의 모스크바 마슬레니차 모습에 대해서는 28-31쪽을 참조하라.

42) “Масленица: обряды на каждый день”, *Uralweb.ru* (<https://www.uralweb.ru/pages/other/3013.html>. 검색일: 2018년 10월 26일).

을 놓고 청년들이 두 패로 나뉘어 싸우는데, 이때 이 지역에서는 각각을 보병과 기병으로 나누어 한 편(보병)은 성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고 다른 한 편(기병)은 성을 공격하는 역할을 맡았다. 지휘자의 신호에 따라 공격 측이 성으로 돌진하면서 싸움이 시작되고, 수비 측은 빗자루 등 여러 가지 물건들을 사용해서 성을 방어했다. 그러나 결국에는 공격 측이 성을 포위한 후 문을 열고 돌진해 들어옴으로써 승리하게 된다. 성을 점령한 측은 승리를 기념해서 자신들의 지휘관을 얼음구멍에서 빠트렸다. 그리고 이 전투놀이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함께 설성을 부셨으며, 이후 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돌아갔다.<sup>43)</sup>

마슬레니차 주간의 마지막 날들인 토요일과 일요일은 축제를 정리하고 다가오는 사순절의 대 금욕재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용서의 날들(прошенье дни)’이라고 불린다. 이 기간은 자신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는 날이자, 자신이 잘못을 저지른 사람으로부터 용서를 구하는 날이다. 그리고 이날에는 자신에게 심각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라도 용서를 구하면 “신이 그를 용서한다(Бог его простит).”는 말과 함께 사죄를 받아들였다. 또한 이날에는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길을 가다 만나는 모든 이에게 서로 용서를 구했다. 특히, 이 두 날 중에서도 일요일이 보다 중요한 ‘용서의 날’인데, 이날에는 나이 많은 친척들을 찾아가 작별인사를 하면서 용서를 구했다. 이때 용서를 구하는 쪽에서 “우리가 당신께 지은 죄에 대해 저를(저희를) 용서하세요(Простите меня(нас) в чем мы пред вами согрешили).”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신이 너를(너희들을) 용서한다. 너도(너희도) 나를 용서해다오(Бог

43) Дубровский Н.(сост.), *Масляница*. М.: Типография С. Селиванова, 1870, с. 20-21; “Масляница”, *Энциклопедический словарь Т. XVIIIА Малолетство - Мейшагола* / Издатели: Ф. А. Брокгауз, И. А. Еврон. СПб., 1896, с. 756.

тебя(вас) простит, и вы нас простите).”라고 답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치즈로 된 음식으로 저녁식사를 한 후 흑빵 한 조각을 소금과 함께 먹었는데, 이것은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사순제 금식을 준비하는 의식이었다.<sup>44)</sup>

‘용서의 일요일’에는 또한 일가친척의 묘지를 찾아가 성모했다. 몇몇 지역에서는 묘지를 찾는 순서가 있어서, 먼저 가족의 묘를 참배한 후, 성직자에게 가서 지은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시간을 가졌으며, 그 후 사망한 친척들의 묘소를 방문했다. 전통적으로 슬라브족은 내세를 믿어서 죽은 자의 영혼이 산 자와 함께한다고 믿었으며, 이러한 이유로 먼저 죽은 친척의 묘소를 방문하면 이들이 방문자의 사랑과 경의에 기뻐한다고 생각했다.<sup>45)</sup> ‘용서의 일요일’에 용서를 구하고 일가친척의 묘를 찾는 것에 있어서는 군주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총대주교가 있던 시기에 총대주교와 차르는 서로 방문하여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는 행사를 가졌는데, 먼저 총대주교가 고위 성직자들과 함께 차르를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면, 다음으로 차르가 고위 관료들을 대동하고 총대주교를 찾아가서 용서를 구했다. 차르는 총대주교로부터 용서를 받은 후, 추도프수도원(Чудов монастырь)과 보즈네세니예수도원(Вознесенский монастырь)을 방문해서 성자의 유골과 조상의 묘를 참배했다.<sup>46)</sup>

또한 이날에는 축제 첫 날 만들어 놓았던 ‘마슬레니차-허수아비’를 태우거나 매장함으로써 마슬레니차 주간을 마무리했다. 이 ‘마슬레니차-허수아비 태우기(сжигание (соломенного чучела) масленицы)’는 ‘이교’ 전통에서 유래한 대표적인 행사이다. 이러한 이유로 마슬레니차를

44) Дубровский Н.(сост.), *Масляница*. М.: Типография С. Селиванова, 1870, с. 41-42.

45) Дубровский Н.(сост.), *Масляница*. М.: Типография С. Селиванова, 1870, с. 43.

46) Дубровский Н.(сост.), *Масляница*. М.: Типография С. Селиванова, 1870, с. 43-44.

그리스도교 전통으로 설명하는 쪽에서는 이 행사의 중요성을 축소하고, 이를 그리스도교적 행사로 달리 해석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 D. E. 크라프추노프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마슬레니차-허수아비 태우기는 그리 일반적인 행사가 아니었으며, 보다 일반적으로 행해지던 ‘낡은 물건 태우기’는 사람들이 부활절 이전까지 해소해야만 하는 낡은 과거를 상징하는 것으로 그리스도교적 행사이다.<sup>47)</sup> 즉, 크라프추노프는 마슬레니차-허수아비 태우기와 낡은 물건 태우기를 별개의 행사로 구분한 후, 전자는 대중적이지 않은 행사로 그 의미를 축소하고, 후자는 그리스도교적 행위로 행사의 의미를 바꾸어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제정 시기에 러시아 내 수많은 지역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형태의 마슬레니차-허수아비들에 대한 기록에 의해 반박된다. 코스트로마주(Костромская губерния)에서 열린 오보스(обоз)는 마슬레니차 주간의 마지막 날인 일요일에 치장을 하고 짚으로 만든 콜파크(колпак)<sup>48)</sup>를 쓴 남성들의 말 타기 행사이다. 그런데 이날 저녁에 이들 남성들은 도시 외곽으로 가서 자신이 쓰고 있던 콜파크를 불태웠는데, 이것은 “마슬레니차-허수아비 불태우기”의 한 형태이다. 또한 이곳의 농촌지역에서는 이 날 저녁에 남자와 여자들이 짚을 한 다발씩 들고 모여서 한군데 쌓아 놓고 태웠는데, 이것을 “짚으로 만든 남자 태우기(сожечь соломенного мужика)”라고 불렀다. 사라토프주(Саратовская губерния) 흐발린스크군(Хвалынский уезд)에서는 마슬레니차 기간에

47) Крапчунов Д. Е., “Проблема соотношения христианского и языческого в восприятии русской традиционной культуры на примере масленичной обрядности,” ПРАЗНМА. Проблемы визуальной семиотики. № 3(5), 2015, с. 125–126.

48) 콜파크(колпак)는 원추형이나 타원형의 모자이다.

〈그림 4〉 마슬레니차-허수아비 태우기



\* A. M. 바스네초프(A. M. Васнецов), “마슬레니차-허수아비 태우기: 20세기 초 (Сжигание чучела Масленицы в начале XX века)”,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b/be/Васнецов\\_Сжигание-чучела-Масленицы.jpg](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b/be/Васнецов_Сжигание-чучела-Масленицы.jpg), 검색일: 2018년 10월 26일).

목각 마슬레니차(-허수아비)를 말에 태우고 돌아다니다 일요일에 이것을 땅에 묻었는데, 이를 “마슬레니차 매장하기(хоронить масленицу)”라고 불렀다. 블라디미르주(Владимирская губерния), 바트카주(Вятская губерния), 심비르스크주(Симбирская губерния), 사라토프주(Саратовская губерния), 펜자주(Пензенская губерния), 니쭈노노브고로드주(Нижегородская губерния)에서는 약사들이 12마리 말이 끄는 썰매를 타고 연주하며 돌아다녔는데, 이것을 ‘순결한 마슬레니차 장례(похороны честной масленицы)’ 또는 ‘순결한 마슬레니차 송별회(проводы честной масленицы)’라고 불렀다.<sup>49)</sup> V. K. 소콜로바(V. K. Соколова)에 따르



면, 소련시기에도 수많은 슬라브계 러시아인 거주 지역들에서는 마슬레니차 기간에 ‘마슬레니차-허수아비 태우기’를 했으며, 또한 이 중 많은 지역들에서는, 이와 병행해서 그리고 몇몇 경우에는 단독적으로, 마슬레니차-허수아비 매장, 짚 그리고/또는 낡은 물건 태우기도 행해졌다.<sup>50)</sup> 즉, 마슬레니차-허수아비 태우기 행사는, D. E. 크라프추노프의 해석과는 달리, 유럽러시아 지역에서 시베리아 지역에 이르는 공간에 위치한 러시아인 거주 지역들에서 광범위하게 발견되는 현상이었으며, 낡은 물건 태우기 행사 또한 마슬레니차-허수아비 태우기와 분리된 독립적 현상이 아니라 이와 연계되거나 이를 대체하는 행사였던 것이다.

#### IV. 결론

마슬레니차는 슬라브족의 다신교 전통에 따라 숭배되었던 최고신들 중 하나인 벨레스를 기념하는 봄 축제가 정교 도입 이래로 그리스도교적 축제로 정착하게 된 것이다. 키예프 루시 시기에 슬라브족은 죽음의 겨울을 지나 대지 위에 생명이 부활하는 봄이 오는 시기에 가축의 신인 벨레스의 이름을 빌어 축제를 벌였다. 그런데 블라디미르 시기에 비잔티움 제국으로부터 정교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이교’신인 벨레스를 기념하는 축제는 그리스도교 문화로 윤색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축제의

49) Дубровский Н.(сост.), *Масляница*. М.: Типография С. Селиванова, 1870, с. 15-17.

50) Соколова В. К., *Весенне-летние календарные обряды русских, украинцев и белорусов XIX — начало XX в.* М.: Наука, 1979, с. 16-28.

시기와 내용에 있어서 얼마간 변화를 겪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마슬레니차에는 이교적 특징을 보이는 행사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 한편으로는 마슬레니차 행사들에서 금육에 대한 요구와 사죄와 용서라는 그리스도교적 문화로 해석할 수도 있는 특징들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블린과 같은 음식, 썰매타기, 대중유락 등과 같은 다양하고 보다 보편적이었던 행사들에서는 어떠한 종교적 특색도 찾기 어려우며, 주먹싸움, 성뺨기와 같은 놀이를 통해서는 전사 문화의 잔재를 오히려 찾을 수 있다. 그리고 마슬레니차-허수아비 태우기 행사를 통해서는 이 축제 속에 남아있는 슬라브족 전통 신앙의 유습을 느낄 수 있다.

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 내에서는 마슬레니차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전통적 입장에서 있는 학자들이 마슬레니차가 러시아 정교회에 의해 수용된 면이 있으나 그 기원은 '이교' 전통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다른 일단의 연구자들이 이러한 해석을 소련 시기에 나온 이념적으로 편향된 분석 또는 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 내부에서 발현된 신이교주의나 외부에서 들어온 개신교 계통의 종파들의 영향을 받은 잘못된 분석으로 평가절하하면서, 마슬레니차는 러시아 정교회의 전통이라는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마슬레니차는 그 기원이나 내용에 있어 그리스도교적 전통과 슬라브족의 '이교' 전통이 결합된 산물로 볼 때에야 제대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었다. 즉, 마슬레니차는 슬라브족의 '이교' 신앙의 산물인 봄 축제 위에 그리스도교의 사육제적 특성이 덧씌워진 러시아관 사육제라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남혜현, 「마슬레니차와 홀리 비교 연구 - 축제의 종교적 의미와 사회적 기능을 중심으로 -」, 『비교문화연구』 9권 1호, 2005, 1-17쪽.
- 손상오, 「축제의 현상과 전례적 의미 - 축제의 의미추구와 전례적 적응의 문제 -」, 『현대가톨릭사상』 15권, 1996, 101-130쪽.
- 양도원, 「사육제의 기원과 변천과정 연구 1 - 어원과 고대사회의 축제를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18권, 2006, 165-186쪽.
- 양도원, 「사육제의 기원과 변천과정 연구 2 - 기독교화 이후의 사육제」,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20권, 2007, 113-132쪽.
- 임영상, 「러시아 정교회와 종교축일 - 봄철 축일을 중심으로 -」, 『서양사론』 56호, 1998, 99-130쪽.
- 황영삼, 「러시아 축제문화 속에 나타난 러시아인의 특징」, 『슬라브연구』 17권 1호, 2001, 77-94쪽.

Агапкина Т. А., *Мифопоэтические основы славянского народного календаря. В осенне-летний цикл*. М.: Индрик, 2002.

Дубровский Н.(сост.), *Масляница*. М.: Типография С. Селиванова, 1870.

Киктенко Елизавета, “Родительские субботы”, *Фома*  
(<https://foma.ru/roditelskie-subbotyi.html>. 검색일: 2018년 10월 26일).

Крапчунов Д. Е., “Проблема соотношения христианского и языческого в восприятии русской традиционной культуры на примере масленичной обрядности,” *ПРАЭНМА. Проблемы визуальной семиотики*. № 3(5), 2015, с. 117-127.

“Масляница”, *Энциклопедический словарь Т. XVIII<sup>1</sup> Малолетство - Мейшагола*  
/ Издатели: Ф. А. Брокгауз, И. А. Еврон. СПб., 1896, с. 755-756.

“Масленица: обряды на каждый день”, *Uralweb.ru*  
(<https://www.uralweb.ru/pages/other/3013.html>. 검색일: 2018년 10월 26일).

Матюхина Ю. А., Алебастрова А. А., Сорокина О. И., Далланова Л. Ж., Малахова

Е. Е., *Масленица, Великий пост, Пасха: История, традиции, постный и праздничный стол*. М.: Ниола-Пресс, 2010.

Моисеенков Александр, “Масленица: смысл, история и традиции”, *Фома*  
(<https://foma.ru/maslenicza-smysl-i-istoriya-tradiczii-i-obryadyi.html#smysl>. 검색일: 2018년 10월 26일).

*Повесть временных лет*, Moscow; Augusburg: Im Werden Verlag, 2003.

Соколова В. К., *Весенне-летние календарные обряды русских, украинцев и белорусов XIX — начало XX в.* М.: Наука, 1979.

〈Abstract〉

## Maslenitsa(Масленица)

between Paganism and Christianity in Russia

Yang, Seung Jo

Maslenitsa is derived from the traditional spring festival of the Slavs. For this reason Maslenitsa festival, a week before the Lent, extended not only non-religious events such as sledding, carnival travel(Народные гулянья), and Russian boxing(Кулачный бой), but also the heritage of paganism such as burning Maslenitsa, which is a scarecrow made of straw and old clothes. However, after the Kievan Rus' embraced Christianity, the Russian Orthodox Church attempted to transform Maslenitsa into a Christian festival. In this process, events such as 'jejunium(do not eat meat)' and 'Sunday of Forgiveness', which have strong Christian characteristics, had been conducted. Also during the reign of Peter I, the masquerade parade, which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part of the Carnival, was added. As a result, unlike Carnivals in Europe, Maslenitsa became a unique spring festival in Russia.

Key Words: Maslenitsa, Carnival, Festival, Russian Orthodox Church, Slavic Paganism

이 논문은 2018년 10월 31일 접수되어 11월 30일 심사를 완료하고  
12월 10일에 게재 확정되었습니다.